

취 임 사

사단법인 대한용접·접합학회
회 장 나 석 주



먼저 대한용접·접합학회 회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에 성취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총회에서 앞으로 2년 동안 학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감사드리며 향후 학회 발전을 회원님들과 더불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학회는 지난 25여 년 동안 회원님들의 왕성한 학술활동과 역대 회장님들 및 임원님들의 헌신적인 기여, 그리고 특별 회원사를 비롯한 회원님들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최근의 각종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룩한 성과에 대한 자축보다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학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세대의 이공계기피현상과 산업계의 3D기피현상, 제조업에 있어서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도전을 극복하고, 정보화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지식창조활동과 이를 토대로 젊은 인재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가치창출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학회도 용접 및 접합에 관련된 연구와 산업분야에서 국제적인 선도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중점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2년간 학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회의 임원진을 선출하는 방법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25여 년 동안 학회활동이 다양화되었으며 회원의 수가 증가하고 회원들이 근무하는 업종도 많아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학회로서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해진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임원선출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동시에 산업현장에 유익한 정보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투고 논문수의 감소는 거의 모든 국내 학술지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 연구위원회 및 학회의 학술대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회활동의 세계화입니다. 우리의 용접 및 접합 관련 산업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지만 학회의 국제위상은 아직 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2007년 5월에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04년에 발족한 아시아용접연맹(AWF)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며, JWS, CWS, AWS 등 외국 학회들과의 교류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회가 미룰 수 없는 국제화 사업은 국제용접학회(IIW: International Institute of Welding)와의 관계 정립입니다. 대한 용접·접합 학회가 국제용접학회에 가입하여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IIW의 년 회비, 년차 대회 참가자, 분과 위원회 참가자 등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회가 중심이 되어 용접 및 접합기술의 저변확대를 추구하겠습니다. ISO 및 KS규정 제·개정 사업과 같은 정부주관의 다양한 용접관련 업무에 학회가 적극 참여하고 학회의 특별 회원사를 포함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용접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또한 젊은 용접·접합 분야 연구자들의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를 포함한 새 임원들의 노력과 함께 회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대한용접·접합학회 회원님들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여 모두가 함께 큰 보람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대한용접학회의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역대 회장님 임원님들과 지난 임기동안 학회발전에 애쓰신 박동환 전임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력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07년 1월